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임마누엘 [이사야 7:1-17]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증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찌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5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7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8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도 육십 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찌니라 9 (8절에 포함되어 있음)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데서든지 높은데서든지 구하라 12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줄 알 때에 미쳐 빠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바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크리스마스가 또다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상의 것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두 명의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9).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데서든지 높은데서든지 구하라* (이사야 7:11). 하나님께 제한이란 없습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시리아는 3년 안에 무너졌으며 10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결국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말을 사용해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 7:12).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기만의 해결책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앗시리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더 극심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면 그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이며 자급자족 가능하며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단지 취미생활이나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까? 믿음은 그 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분의 영광의 놀라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적에 관한 경외심 안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집중력을 잃

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찌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3:14).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 분 자신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유일한 소망되십니다. 그 분은 확실한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 그 분의 은혜는 실제입니다. 천상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아이. 처녀의 잉태. 하나님께서 묘사한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